

서울신문 갤러리

“자연과 인간”테마 企劃展 열어

서울신문사는 최근 50대이하의 한국화가 21명을 초대하여 화단 가을잔치로 “자연과 인간”타이틀의 테마기획전을 마련하여 서울갤러리에서 9월 7일부터 19일까지 전시회를 가졌다.

특히 이번 초대전의 테마로 선정된 “자연과 인간”이라는 주제는 현대과학기술문명의 발달과 함께 실종되어가고 있는 自然主義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휴머니즘과의 만남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초대된 작가들의 명단과 선정위원들이 밝힌 趣旨文을 여기 소개한다.

초대작가명단

구지연	김병중	김보희	김선두	김천영
문봉선	백순실	석철주	송인혁	오용길
윤영진	이선우	이일종	임연숙	장혜용
정명희	정종해	정종미	차대영	한진만
허진				

취지문

자연, 인간의 조율과 그 미학

20세기에 접어들어 한국화단의 전통회화는 부단하게 자연과 인간의 양자가 갖는 고뇌와 조율의 미학을 위해 몸부림쳤다. 道家를 위시한 合自然 사상은 결국 독특한 자연주의의 개념으로 이어졌고 현대의 휴머니즘은 그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상대적인 동행과 파열음을 일으켰다.

을 일으켰다.

이번 서울신문사에서 21명의 현역작가들을 중심으로 열게된 기획전은 한국의 전통회화가 20세기에 접어들면서 겪어온 이 양자간의 논제를 어떻게 미학적으로 수용하고 작업현장에 반영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는 의도에서였다.

작가들의 전체구성도 50대이하로 이루어졌으며 실경산수 작가로부터 최근 서구사조를 과감히 받아들인 작가들까지 폭넓게 초대되었으며 수묵과 채색등 재료상의 구분도 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전시의 기획의도인 자연과 인간의 테마에서 벗어나지 않는 작가를 중심으로 했다는 점에서 가능한 양자간의 어느 한 명료한 입장이나 동시 수용, 비교를 시도한 경향에 근거하여 활발한 작품세계를 보여주는 경우를 선별함으로써 단편적이거나 최근의 양자간 동행관계를 조명해 보려하였다.

선정위원/김복영, 신항섭, 최병식



文鳳宣 作 “북한산국립공원” 「仁壽峯」